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

장 휘 숙* 최 영 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169명)과 60대 남녀 노인(123명)을 대상으로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서 성차와 연령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를 통하여 양자가 정반대의 개념인지 아니면 공존하는 개념인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죽음수용의 유형에 따라 죽음공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되었다.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경험하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적은 죽음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60대는 20대보다 탈출적 수용과 중립적 수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차이를 보였다. 이와함께 20대와 60대 모두 죽음수용의 3가지 차원과 죽음공포의 일부 차원들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냄으로써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은 공존하는 개념임이 분명하였다. 세가지 죽음수용 차원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2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고 20대는 세가지 죽음수용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그리고 60대는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점수가 높고 중립적 수용점수가 낮은 집단과 그 반대의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60대 여성을 제외하고 두 개의 군집은 죽음공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죽음공포, 죽음수용,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 중립적 수용

성인후기의 노인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어떻게 죽음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Cicirelli, 2003). Erikson (1968)은 그가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의 최종적 단계의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들은 공포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된

다(Becker, 1973; Marshall, 1980). 그러나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실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세라는 미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육신의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에 대한 공포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와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죽음공포는 단일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중다차원적 개념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 예로서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Johnson과 Barer(1997)은 노인들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를 거의 갖지 않으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죽음공포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Collett-Lester 척도의 개정판에서, Lester(1994)는 죽음공포가 자기의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타인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의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고 가정하였고, MFODS(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를 개발한 Hoelter(1979)는 죽음공포를 8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중다차원적 죽음공포를 측정하는 바 있다. MFODS에서 죽음공포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소멸하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죽는 것에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처리에 대한 공포, 그리고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를 포함하며, 이러한 8가지 차원은 Neimeyer와 Moore(1994)의 후속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와같이 죽음공포는 중다차원적 개념임이 분명하지만 얼마나 많은 차원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음공포는 연령이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많은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성인초기 젊은 이들이나 중년의 성인들보다 더 적은 죽음공포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Fortner, Neimeyer, & Rybarczyk, 2000; Kastenbaum, 1992; Neimeyer & Van Brunt,

1995; Thorson & Powell, 2000), 또한 20대 이후부터 죽음공포가 감소하고 여성들은 50대 초반에 죽음공포에서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지만 남성들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Russac, Gatliff, Reece & Spottswood, 2007). 그러나 죽음공포와 관련한 일관성있는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Kastenbaum, 2000; Neimeyer, 1988; Wass & Myers, 1982). 죽음불안을 연구한 결과들 역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Dattel & Neimeyer, 1990).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큰 죽음수용을 보인다는 것이다(Cicirelli, 2006). 그렇다면 죽음수용에 이른 사람들은 죽음공포를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은 정반대의 개념인가 아니면 공존하는 개념인가? 죽음공포에서의 감소는 죽음수용의 증가를 동반해야할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Feifel(1990)이나 Ray와 Najman(1974)같은 연구자들은 실제로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은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은 공존하는 개념인가? 양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죽음수용이란 개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 비교적 편안할 수 있는 것으로 Klug와 Sinha(1987)은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지적 인식과 그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동화”로 정의하였다. 일찍이 Kübler-Ross(1969)는 죽어가는 과정의 최종적 단계로서 죽음수용을 가정하였다. 그녀는 말기암 환자들이 부정과 분노, 타협 그리고 우울의 단계를 거쳐 죽음수용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각 개인은 단념이나 포기으로써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Wong과 Reker

및 Gesser(1994)는 단념이나 포기로서의 죽음수용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제한될 뿐, 일반 노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어떤 노인들은 신체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열렬히 기대하기까지 하므로 죽음수용은 노인들의 보편적인 죽음태도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ong 등(1994)은 죽음수용을 중립적 수용과 접근적 수용 및 탈출적 수용으로 구분하고 죽음수용의 유형에 따라 죽음공포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가지 유형의 죽음수용 중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은 삶의 자연스러운 끝이나 종결로서의 죽음을 가정하고 삶은 단순히 죽음을 향해가는 여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이 조망의 개인들은 죽음을 변화불가능한 인생 사건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도 환영받을 대상도 아니며 단지 유한한 삶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이와는 달리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에서는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 조망의 개인들은 보상으로서의 사후세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한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강한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접근적 수용이 흔하게 나타난다(Berman, 1974). 한편 탈출적 수용(escape acceptance)은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수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특히 고통에 시달릴 때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죽음은 유일한 탈출구가 되므로 죽음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환영을 받는다.

죽음에 대한 차이나는 근접성과 노출 때문에 연령에 따라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

을 것을 것으로 쉽게 가정될 수 있다. Gesser와 Wong 및 Reker(1987)는 노인들이 더 큰 중립적 수용을 나타내지만, 그들은 개인적 상실이나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중년 성인이나 성인초기의 젊은이들보다 더 큰 탈출적 수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Wong 등(1994)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큰 중립적 수용을 나타내었으나 중년성인들과는 차이가 없었으며, 탈출적 수용과 접근적 수용에서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과 중년성인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노인들은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그리고 내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죽음 후의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보다 더 높은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을 나타내어 내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내었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의 죽음을 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lenow와 Bolin(1989)의 연구에서도 동일할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20대의 남녀 대학생들과 60대의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서 성차나 연령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이 어떤 관계이며, 양자가 정반대의 개념인지 공존하는 개념인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론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죽음수용 중 삶의 불가피한 종결로서 죽음을 수용하는 중립적 수용이 죽음에 대한 가장 성숙한 조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Wong 등, 1994), 중립적 수용점수가 높고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중립적 수용점수가 낮고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점수가 높은 사람들보다 더 적은 죽음공포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므로 죽음수용의 유형에 따라 죽음공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들과 D시에 거주하는 60대 남녀노인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대학생의 자료는 수업시간에 담당교수에 의해 집단으로 실시되었고, 노인들의 자료는 사전에 훈련을 받은 5명의 발달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노인들과 일대일로 면접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학생들과 면접도중 응답을 포기한 노인들이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녀 대학생 169(남: 86명, 여: 83명)명과 60대 남녀 노인 123명(남성: 53명, 여성: 7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노인남성들의 94.3%와 노인여성들의 72.9%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남녀 모두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며, 노인남성들의 90.6%와 노인여성들의 85.7%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노인남성들의 70% 이상과 노인여성들의 18%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64%의 노인남성들과 32.9%의 노인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남녀 노인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상업, 사무직, 전문직, 공무원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노인남성은 180만원 그리고 노인여성은 100만원 정도였으나 노인남성의 3.8%와 노인여성의 11.4%가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도 있어 노인들의 생활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대학생 21.85세($SD=2.546$)세, 여자 대학생 20.01($SD=1.401$)세,

그리고 60대 남성 65.57($SD=2.685$)세, 60대 여성 65.27($SD=2.697$)세였고, 자료 수집은 2007년 5월 초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죽음공포 척도

장휘숙과 최영임(2007)이 타당화한 죽음공포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가 사용되었다. 원래 MFODS는 Hoelter(1979)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8개 차원의 4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나 이홍표, 이홍석, 고효진, 김교현(2005)이 7개 차원의 29개 문항으로 타당화한 바 있다. 장휘숙 등(2007)은 이홍표 등(2005)의 척도를 다시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각 요인의 명칭을 보다 구체화하여 7개 차원의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7개 차원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6문항, 예: 죽을 때 심한 고통을 겪을까봐 두렵다),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2문항, 예: 죽으면 내 몸을 과학연구를 위해 기증하고 싶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4문항,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다면 한참 동안 고통스러울 것이다),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3문항, 예: 사후세계가 없을까봐 두렵다),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3문항, 예: 죽기 전에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2문항, 예: 죽은 후에 내 육체가 썩는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 그리고 '시체에 대한 공포'(2문항, 예: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를 포함한다. 7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죽음공포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대학생의 경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905,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873,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713,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895,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819,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공포 .895, 시체에 대한 공포 .717이었고 노인들은 각각 .889, .845, .794, .878, .828, .817, 그리고 .779였다.

는 의미를 지닌다.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및 중립적 수용 척도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각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917, .837 그리고 .778이었다.

결 과

죽음수용 척도

Wong 등(1994)에 의해 개발된 다섯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죽음태도 척도에서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차원을 제외하고 세 개의 죽음수용 차원 즉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및 중립적 수용 문항을 번안하여 죽음수용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접근적 수용 8문항(문항 예: 나는 죽음을 영원한 축복의 장소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탈출적 수용 3문항(문항 예: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중립적 수용 3문항(문항 예: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이 선정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성과 연령에 따른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서의 차이

1) 죽음공포

먼저 성과 연령에 따라 죽음공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과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죽음공포의 7개 하위차원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체에 대한 공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성: 남성, 여성) \times 2(연령: 20대, 60대)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과 연령에 따른 죽음공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고, 표 2는 변량분석에 의해 계산된 유의한 F 값을 제시한다.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와 미지(사

표 1. 성과 연령에 따른 죽음공포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성	연령	N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신체 기증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남	20대	86	2.529(.924)	3.168(1.025)	3.918(.714)	1.918(.724)	3.314(.932)	1.918(.867)	3.436(.978)
	60대	53	2.827(.981)	3.466(1.212)	3.219(.830)	1.872(.716)	2.353(.943)	1.724(.717)	2.655(.909)
	전체	139	2.642(.954)	3.282(1.105)	3.652(.831)	1.901(.719)	2.947(1.044)	1.844(.816)	3.138(1.022)
여	20대	83	2.831(.814)	3.162(1.118)	4.108(.689)	1.895(.923)	3.265(1.061)	2.198(1.029)	4.138(.881)
	60대	70	3.604(.937)	3.350(1.370)	3.935(.775)	1.946(.892)	2.557(1.062)	2.300(1.171)	3.871(1.199)
	전체	153	3.185(.951)	3.248(1.239)	4.029(.732)	1.919(.907)	2.941(1.116)	2.245(1.094)	4.016(1.044)
전체	20대	169	2.677(.882)	3.165(1.068)	4.011(.707)	1.907(.826)	3.289(.995)	2.056(.958)	3.781(.993)
	60대	123	3.269(1.028)	3.400(1.301)	3.627(.872)	1.915(.819)	2.469(1.014)	2.052(1.037)	3.347(1.237)
	전체	292	2.927(.989)	3.264(1.175)	3.849(.802)	1.910(.821)	2.944(1.080)	2.054(.990)	3.598(1.121)

표 2. 성과 연령에 따른 죽음공포의 하위차원에서의 유의한 F값

	성(<i>df</i> =1)	연령(<i>df</i> =1)	성 x 연령(<i>df</i> =1)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24.821***	24.491***	4.803*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26.053***	24.123***	8.796*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419	48.566***	1.114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13.623***	.161	1.622
시체에 대한 공포	64.933***	19.373***	4.657*

후세계)에 대한 공포에서 성과 연령의 주효과는 물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두 개의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차원에서의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죽음공포의 7가지 차원 중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에서 성($F(1, 288)=24.821, p<.001$)과 연령($F(1, 288)=24.491, p<.001$)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F(1, 288)=4.803, p<.05$)가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네집단을 비교한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같이 6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t(154)=7.181, p<.001$)과 여성($t(151)=5.461, p<.001$) 및 60대 남성들($t(121)=4.460, p<.001$) 보다 유의하게 더 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보이고 20대 남성들은 20대 여성들($t(167)=2.252, p<.05$) 보다 더 적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60대 여성이 가장 큰 공포를 보이고 20대 남성이 가장 적은 공포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60대가 20대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더 큰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도 성($F(1, 288)=26.053, p<.001$)과 연령($F(1, 288)=24.123, p<.001$)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F(1, 288)=8.796, p<.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네집단을 비교한 결과 그림 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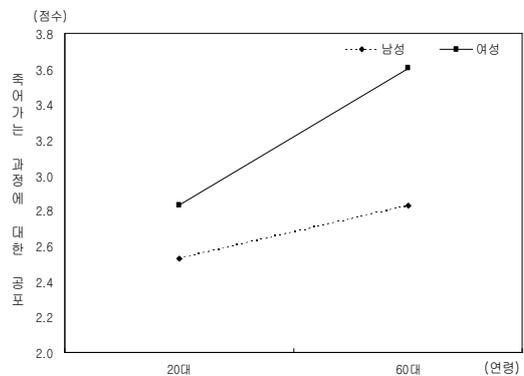


그림 1.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에 대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제시된 바와같이, 60대 남성들은 20대 남성($t(137)=5.264, p<.001$)과 20대 여성($t(134)=6.765, p<.001$) 및 60대 여성($t(121)=4.923, p<.001$)들보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어, 60대 남성들이 타인의 상실에 대한 가장 적은 공포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그리고 20대는 60대보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더 큰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에서는 연령의 주효과($F(1, 288)=48.566, p<.001$)만 유의하였고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에서는 성의 주효과($F(1, 288)=13.623, p<.001$)만 유의하였다. 즉 20대가 60보다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데 대해 더 큰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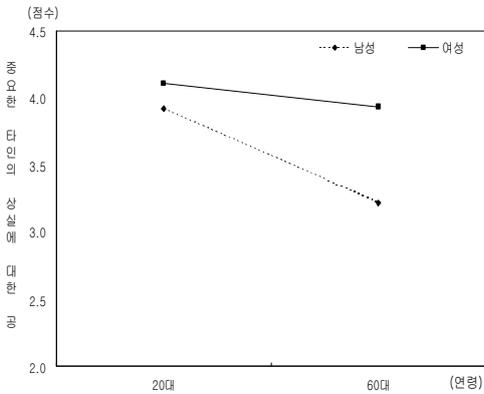


그림 2.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에 대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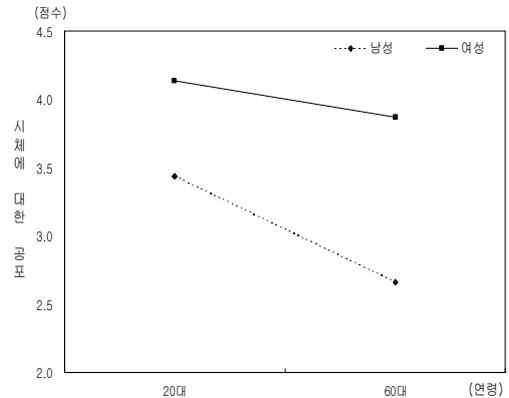


그림 3. 시체에 대한 공포에 대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포를 경험하고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사후의 신체 변화에 대해 더 큰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시체에 대한 공포에서는 성($F(1, 288)=64.933, p<.001$)과 연령($F(1, 288)=19.373, p<.001$)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F(1, 288)=4.657, p<.05$)가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네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림 3에 제시된 바와같이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t(167)=4.899, p<.001$)과 60대 남성($t(134)=9.458, p<.001$)들보다 그리고 6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들($t(154)=2.497, p<.05$)과 60대 남성들($t(121)=6.160, p<.001$)보다 더 큰 시체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었고, 20대 남성은 60대 남성들($t(137)=4.694, p<.001$)보다 더 큰 시체에 대한 공포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20대와 60대 여성들이 시체에 대한 가장 큰 공포를 보이고 그 다음이 20대 남성, 그리고 60대 남성의 순이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20대가 60대보다 시체에 대한 더 큰 공포를 지니고 있었다.

2) 죽음수용

죽음수용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과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3가지 죽음수용 즉,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및 중립적 수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성: 남, 여) \times 2(연령: 20대, 60대)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과 연령에 따른 죽음수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며, 표 4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제시된 바와같이 접근적 수용에서는 성의 주효과($F(1, 288)=12.142, p<.001$)만 유의하였고, 탈출적 수용에서는 성($F(1, 288)=5.714, p<.05$)과 연령($F(1, 288)=16.121, p<.001$)의 주효과가 그리고 중립적 수용에서는 연령의 주효과($F(1, 288)=7.602, p<.01$)만 유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점수를 보이고 60대가 20대보다 더 높은 탈출적 수용과 중립적 수용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내세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표 3. 성과 연령에 따른 죽음수용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연령	N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	중립적 수용
남	20대	86	3.088(1.142)	2.814(1.348)	5.732(.874)
	60대	53	3.199(1.405)	3.289(1.532)	5.918(1.200)
	전체	139	3.130(1.245)	2.995(1.434)	5.803(1.011)
여	20대	83	3.625(1.438)	3.012(1.344)	5.409(1.032)
	60대	70	3.768(1.358)	3.905(1.542)	5.881(.942)
	전체	153	3.690(1.399)	3.421(1.501)	5.625(1.017)
전체	20대	169	3.352(1.319)	2.911(1.346)	5.574(.9660)
	60대	123	3.523(1.402)	3.640(1.561)	5.897(1.056)
	전체	292	3.424(1.355)	3.218(1.483)	5.710(1.016)

표 4. 성과 연령에 따른 세가지 죽음수용의 F값

	성(df=1)	연령(df=1)	성 x 연령(df=1)
접근적 수용	12.142***	.640	.011
탈출적 수용	5.714*	16.121***	1.509
중립적 수용	2.276	7.602*	1.433

수용하고, 60대는 20대보다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죽음을 수용한다고 해석될 수 있게 하였다.

죽음공포와 죽음수용간의 관계

죽음공포와 죽음수용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 변인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20대 남녀와 60대 남녀를 각기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대 남성의 경우 접근적 수용은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r=-.362,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사후의 신체 변화에 대한 공포($r=.261, p<.0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탈출적 수용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r=.260,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중립적 수용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r=-.214,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수용할수록 더 적은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와 더 큰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고, 죽음을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 지각

할수록 더 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며,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수용할수록 더 적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대 여성들에서는 접근적 수용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r=-.227, p<.05$) 및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r=-.340, p<.01$)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탈출적 수용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r=.260, p<.05$)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그리고 중립적 수용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r=-.303, p<.01$) 및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r=-.234, p<.05$)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수용할수록 더 적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더 적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를 나타내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지각할수록 더 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보이며, 삶의 불가피한 종결로서 죽음을 지각할수록 더 적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더 적은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60대 남성들의 경우, 접근적 수용은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r=-.274, p<.05$) 및 미지(사후세계)에 대

표 5. 남성과 여성의 죽음공포와 죽음수용간의 상관분석 결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20대	남	접근적 수용 .123	-.067	-.072	-.362 (***)	-.017	.261 (*)	.185
		탈출적 수용 .260 (*)	.006	-.079	.022	-.074	.193	.138
		중립적 수용 -.094	-.067	-.214 (*)	-.101	-.199	-.088	.051
60대	여	접근적 수용 -.107	-.188	-.227 (*)	.011	-.340 (**)	-.141	.073
		탈출적 수용 .260 (*)	-.126	-.192	.039	-.006	.011	.065
		중립적 수용 -.303 (**)	-.097	-.017	-.205	-.137	-.234 (*)	.035
20대	남	접근적 수용 .179	-.274 (*)	-.060	-.362 (**)	.175	.181	-.019
		탈출적 수용 .463 (***)	.137	.246	-.268	-.345 (*)	.339 (*)	.245
		중립적 수용 -.027	.325 (*)	-.062	-.386 (**)	-.091	-.269	.015
60대	여	접근적 수용 -.048	-.237 (*)	-.116	-.167	.093	.151	.074
		탈출적 수용 .195	-.151	-.054	-.095	-.034	-.126	-.085
		중립적 수용 -.338 (**)	-.003	.189	-.106	-.034	-.069	.128

한 공포($r=-.362,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행복한 내세를 믿고 죽음을 수용할수록 신체기증에 대해 그리고 미지에 대해 더 적은 공포를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탈출적 수용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r=.463, p<.001$) 및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r=.339,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r=-.345, p<.05$)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수용할수록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그리고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해 더 큰 공포를 경험하고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해서는 더 적은 공포를 경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중립적 수용은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r=.325,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r=-.386,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수용할수록 신체기증에 대해서는 큰 공포를 경험하지만,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는 더 적게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대 여성들은 접근적 수용과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r=-.237, p<.05$)을 나타내고 중립적 수용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r=-.338, p<.01$)을 보였다. 즉 행복한 내세를 믿고 죽음을 수용할수록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는 적고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지각할수록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는 더 적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죽음수용의 3개 하위차원과 죽음공포 7개 하위차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죽음수용의 3개 하위차원 즉,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 그리고 중립적 수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죽음공포의 7개 하위차원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및 시체에 대한 공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죽음수용과 죽음공포에서 성차가 확인되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20대 남성의 경우 접근적 수용은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beta=-.498, t=-4.13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탈출적 수용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beta=.327, t=2.514, p<.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여성들에서는 접근적 수용이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beta=-.390, t=-3.34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탈출적 수용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beta=.359, t=3.263, p<.01$)에 그리고 중립적 수용 또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beta=-.288, t=-2.806, p<.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60대 남성들의 경우, 접근적 수용은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beta=-.270, t=-1.982, p=.053$)에 그리고 탈출적 수용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beta=.447, t=3.412, p<.001$)와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β

$=.307, t=2.280, p<.05$)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중립적 수용은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beta=.281, t=2.129, p<.05$)와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beta=-.313, t=-2.467, p<.05$)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60대 여성들에서는 중립적 수용만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beta=-.310, t=-2.662, p<.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상관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접근적 수용이나 탈출적 수용 혹은 중립적 수용 모두 죽음공포의 하위차원 중의 일부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죽음수용과 죽음공포는 정반대의 개념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개념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죽음수용의 유형에 따른 죽음공포에서의 차이

먼저 죽음수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분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죽음수용 즉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 중립적 수용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과 연령에 따라 죽음수용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20대 남녀와 60대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대 남녀와 60대 남녀 모두에서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나 군집의 내용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즉 20대 남녀의 군집 1은 세가지 죽음수용 점수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고, 군집 2는 세가지 죽음수용 점수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었다. 그러나 60대 남녀의 군집 1은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고 중립적 수용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었으나 군집 2는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에서는 평균

표 6. 남성과 여성의 죽음수용 점수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군집	N	접근적수용M(SD)	탈출적수용M(SD)	중립적수용M(SD)
20대	1	59	4.069(.949)고	4.419(.829)고	6.098(.678)고
	2	27	2.639(.924)저	2.079(.778)저	5.565(.908)저
	전체	86	3.088(1.142)	2.814(1.348)	5.732(.874)
60대	1	52	4.402(1.101)고	3.537(1.257)고	5.450(1.081)고
	2	29	2.176(.649)저	2.034(.883)저	5.333(.947)저
	전체	83	3.625(1.438)	3.012(1.344)	5.409(1.032)
남	1	33	3.918(1.184)고	3.982(1.411)고	5.606(1.378)저
	2	20	2.012(.813)저	2.144(.924)저	6.433(.541)고
	전체	53	3.199(1.405)	3.289(1.532)	5.918(1.200)
여	1	33	4.910(.956)고	4.396(1.368)고	5.434(1.110)저
	2	37	2.750(.681)저	3.468(1.574)저	6.280(.511)고
	전체	70	3.768(1.358)	3.905(1.542)	5.881(.942)

이하의 점수를 그리고 중립적 수용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었다. 다시 말하면 20대 남녀집단에서는 세가지 죽음수용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으로 구분된 반면, 60대 남녀집단에서는 세 가지 죽음수용 중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점수가 높고 중립적 수용점수가 낮은 집단과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점수가 낮고 중립적 수용점수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죽음수용의 유형에 따라 죽음공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된 죽음수용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7개의 죽음공포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에 앞서, 변량의 동질성 검증과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 남성(Box's $M=37.173$, $F(28, 94851.097)=1.269$, $p>.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27)=127.524$, $p<.001$)과 20대

여성(Box's $M=41.235$, $F(28, 11853.668)=1.316$, $p>.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27)=140.044$, $p<.001$), 60대 남성(Box's $M=37.509$, $F(28, 5667.197)=1.121$, $p>.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27)=71.411$, $p<.001$), 그리고 60대 여성(Box's $M=25.093$, $F(28, 15663.376)=.797$, $p>.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27)=138.236$, $p<.001$) 모두에서 변량의 동질성과 구형성이 확인되어 다변량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20대 남성(Wilk's Lambda =.830, $F(7, 78)=2.276$, $p<.05$)과 여성(Wilk's Lambda=.849, $F(7, 75)=1.949$, $p=.073$) 그리고 60대 남성(Wilk's Lambda=.674, $F(7, 45)=3.104$, $p<.01$)에서는 죽음공포에서 2개의 군집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60대 여성(Wilk's Lambda=.892, $F(7, 62)=3.104$,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20대 남성과 여성

표 7. 20대 남녀와 70대 남성의 죽음수용 유형에 따른 죽음공포에 대한 단변량분석 결과

	군집	20대				60대	
		남		여		남	
		<i>M(SD)</i>	<i>F</i> 값 (1, 84)	<i>M(SD)</i>	<i>F</i> 값 (1, 81)	<i>M(SD)</i>	<i>F</i> 값 (1, 51)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1	2.378(.895)		2.907(.804)		3.075(.877)	
	2	2.858(.918)	5.229*	2.689(.827)	1.355	2.418(1.028)	6.123*
	전체	2.529(.924)		2.831(.814)		2.827(.981)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1	3.144(1.046)		3.018(1.081)		3.309(1.180)	
	2	3.222(.993)	.107	3.431(1.155)	2.618	3.725(1.251)	1.479
	전체	3.168(1.025)		3.162(1.118)		3.466(1.212)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1	3.923(.705)		4.046(.722)		3.200(.740)	
	2	3.907(.747)	.010	4.224(.620)	1.258	3.250(.980)	.043
	전체	3.918(.714)		4.108(.689)		3.219(.830)	
미지에 대한 공포	1	1.847(.644)		2.061(1.042)		2.088(.703)	
	2	2.074(.868)	1.828	1.586(.539)	5.258*	1.516(.597)	9.184**
	전체	1.918(.724)		1.895(.923)		1.872(.716)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1	3.350(.921)		3.222(1.165)		2.597(.952)	
	2	3.234(.968)	.283	3.344(.847)	.249	1.950(.796)	6.486*
	전체	3.314(.932)		3.265(1.061)		2.353(.943)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1	1.737(.665)		2.268(1.080)		1.906(.784)	
	2	2.314(1.110)	8.986**	2.069(.932)	.706	1.425(.466)	6.160*
	전체	1.918(.867)		2.198(1.029)		1.724(.717)	
시체에 대한 공포	1	3.313(1.037)		4.175(.771)		2.734(.947)	
	2	3.703(.787)	3.014	4.069(1.066)	.276	2.524(.849)	.656
	전체	3.436(.978)		4.138(.881)		2.655(.909)	

및 60대 남성에 대해 죽음공포 7개 차원에 대한 단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20대 남성의 경우, 군집 1이 군집 2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F(1, 84)=5.229, p<.05$)와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F(1, 84)=8.986, p<.01$)를 더 적게 경험하였고, 20대 여성에서는 군집 1이 군집 2보다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F(1, 81)=5.258, p<.05$)를 더 크게 경험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대 남

성들은 죽음을 수용할수록 더 적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나 20대 여성들은 죽음을 수용할수록 더 큰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60대 남성들에서는 군집 1이 군집 2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미지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및 사후의 신체 변화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접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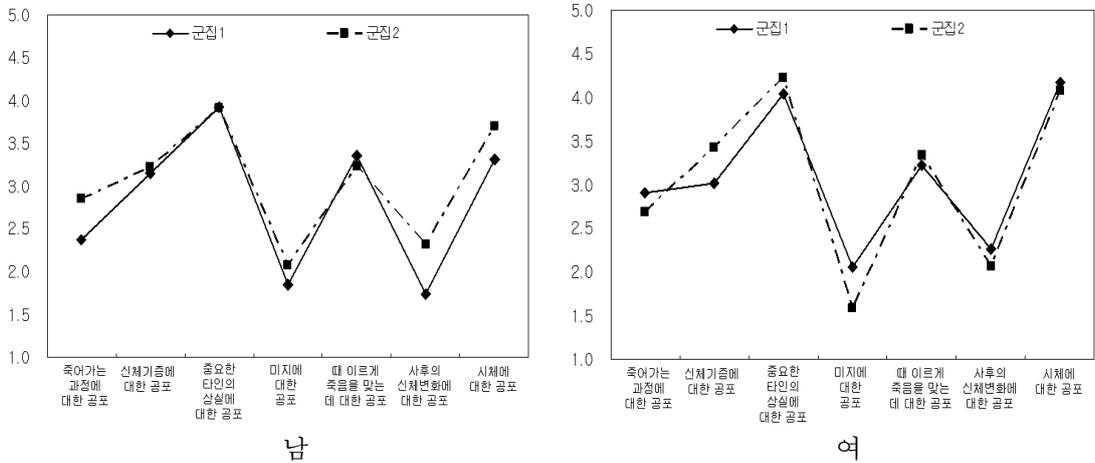


그림 4. 20대 남녀의 죽음수용 유형에 따른 죽음공포에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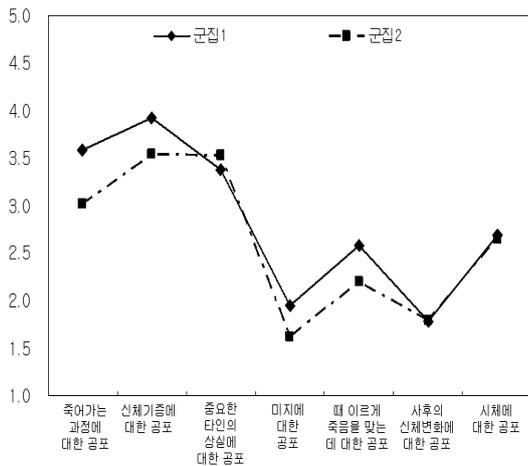


그림 5. 60대 남성의 죽음수용 유형에 따른 죽음공포에서의 차이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높고 중립적 수용이 낮은 집단이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낮고 중립적 수용이 높은 집단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및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들(남: 86명, 여: 83명)과 60대의 남녀 노인들(남: 53명, 여: 70명)을 대상으로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서 성차나 연령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죽음공포와 죽음수용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양자가 정반대의 개념인지 공존하는 개념인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와함께 죽음수용의 유형에 따라 죽음공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되었다. 죽음공포 척도와 죽음수용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먼저 죽음공포의 7가지 차원 중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와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차원을 제외하고 5가지 차원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60대 여성들이 가장 큰 공포를 보이고 20대 남성들이 가장 적은 공포를 보였으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60대가 20대보다 더 큰 공포를 나타내었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는 60대 남성들이 가장 적은 공포를 경험하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그리고 20대는 60대

보다 더 큰 공포를 경험하였고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에서는 20대가 60대보다 더 큰 공포를 나타내었으며,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공포를 경험하였다. 시체에 대한 공포에서는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가장 큰 공포를 경험하였고 그 다음이 20대 남성 그리고 60대 남성의 순이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20대가 60대보다 더 큰 공포를 경험하였다. 또한 죽음수용 중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60대는 20대보다 탈출적 수용과 중립적 수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많고, 60대는 20대보다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끝이나 종결로서 죽음을 지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에서 20대 남성은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수용할수록 더 적은 미지에 대한 공포와 더 큰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고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탈출로 지각할수록 더 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며,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수용할수록 더 적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였다. 20대 여성들은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수용할수록 더 적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더 적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데 대한 공포를 경험하며,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지각할수록 더 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보이고 삶의 불가피한 종결로서 죽음을 지각할수록 더 적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더 적은 사

후의 신체 변화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었다.

60대 남성들은 행복한 내세를 믿고 죽음을 수용할수록 신체기증에 대해 그리고 미지에 대해 더 적은 공포를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수용할수록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그리고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해 더 큰 공포를 경험하며,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해서는 더 적은 공포를 경험하였다. 또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수용할수록 더 적은 미지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지만, 신체기증에 대해서는 더 큰 공포를 경험하였다. 60대 여성들도 행복한 내세를 믿고 죽음을 수용할수록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는 적고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지각할수록 더 적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였다. 죽음수용의 차원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죽음공포의 7개 하위차원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죽음수용과 죽음공포는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어 죽음수용과 죽음공포는 정반대의 개념이기보다는 공존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군집분석으로 죽음수용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20대와 60대 모두 2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나 20대는 세가지 죽음수용이 모두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된 반면, 60대는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높고 중립적 수용이 낮은 집단과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낮고 중립적 수용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20대 남성에서 세가지 죽음수용이 모두 높은 집단은 모두 낮은 집단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그리고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해 더 적은 공포를 경험하였으나 20대 여성에서는 세가지 죽음수용이 모두 높은 집단이 모두 낮은 집단보다 미지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경험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60대 남성에서는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높고 중립적 수용이 낮은 집단이 그 반대의 집단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미지에 대

해,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해 그리고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해 더 큰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성에서는 두 개의 군집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적은 죽음공포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나 (Fortner 등, 2000; Kastenbaum, 1992; Neimeyer & Van Brunt, 1995; Thorson & Powell, 2000), 이 연구는 죽음공포의 차원에 따라 연령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무조건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적은 죽음공포를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과 60대 남녀 노인들보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시체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경험하기는 하지만, 60대 여성들은 60대 남성이나 20대 남녀 젊은이들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더 큰 공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대 여성들은 60대 남성들보다 그리고 20대 여성들은 20대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보임으로써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Kastenbaum, 2000; Neimeyer, 1988; Wass & Myers, 198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죽음수용에서도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보다 더 큰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을 보이고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큰 탈출적 수용과 중립적 수용을 보여 Wong 등(1994)의 연구나 Klenow와 Bolin(198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분명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죽음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이나 종결로 지각할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더 성숙한 조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접근적 수용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신

체기증에 대한 공포 및 미지에 대한 공포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탈출적 수용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및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와는 정적 상관을, 미지에 대한 공포 및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립적 수용은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미지에 대한 공포 및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Feifel(1990)이나 Ray와 Najman(1974)의 주장대로 공존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었다. 아무리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지각하는 중립적 수용태도를 갖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를 지닐 수 있고, 죽음을 환영하는 탈출적 수용태도를 지니는 사람도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나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죽음에 대해 공포를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죽음수용이 20대와 60대 모두에서 두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나 군집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20대에서는 죽음수용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죽음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두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고 죽음수용의 유형과 죽음공포의 관계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들이 아직도 죽음수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남학생들에게는 더 적은 공포를 갖게 하는 반면, 여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경험하게 한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대조적으로 60대의 남자 노인들은 연구자의 예상대로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낮고 중립적 수용이 높은 집단이 더 적은 죽음공포를 보여 중립적 수용이 죽음에 대한 가장 성숙한 조망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60대 여성 노인들은 죽음수용의 유형에 따라 죽음공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여성 노인들에게 죽음수용은 죽음공포와는 별개의 개념일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성노인들은 남성 노인들보다 죽음에 대해 더 큰 공포를 지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중립적 수용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높은 죽음공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공존하는 개념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수용하나 죽음에 대한 공포 자체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흥표, 이흥석, 고효진, 김교현(2005). 다차원적 죽음불안의 타당화 및 비교문화적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95-413.
- 장휘숙, 최영임(2007). 대학생과 노인의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의 관계. *인간발달 연구*, 14(4), 105-122.
- Be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 Berman, A. (1974). Belief in afterlife, religion, religiosity and life-threatening experiences. *Omega*, 5, 127-135.
- Cicirelli, V. G. (2003). Older adults' fear and acceptance of death: A transition model. *Aging International*, 28(1), 66-81.
- Cicirelli, V. G. (2006). Fear of death in mid-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1(2), 75-81.
- Dattel, A. R., & Neimeyer, R. A. (1990). Sex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Testing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hypothesis. *Death Studies*, 14, 1-1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 537-543.
- Fortner, B. V., Neimeyer, R. A., & Rybarczyk, B. (2000). Correlates of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comprehensive review. In A. Tomer (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95-108).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Gesser, G., Wong, P. T. P., & Reker, G. T. (1987).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DAP). *Omega*, 18, 109-124.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96-999.
- Johnson, C. L., & Barer, B. M. (1997). *Life beyond 85 years: The aura of survivorship*. New York: Springer.
- Kastenbaum, R. J. (1992). *The psychology of death* (2nd ed.). New York: Springer.
- Kastenbaum, R. J. (2000). *The psychology of death* (3r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lenow, D. J., & Bolin, R. C. (1989). Belief in an afterlife: A national survey. *Omega*, 20, 63-74.

- Klug, L., & Sinha, A. (1987). Death acceptance: A two-component formulation and scale. *Omega, 18*, 229-235.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Lester, D. (1994).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45-60).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Marshall, V. W. (1980). *Last chapters: A sociology of aging and dying*. Monterey, CA: Brooks/Cole.
- Neimeyer, R. A. (1988). Death anxiety. In H. Wass, F. M. Berardo, & R. A. Neimeyer (Eds.), *Dying: Facing the facts* (pp. 97-136).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mpany.
- Neimeyer, R. A., & Moore, M. K. (199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03-119).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Neimeyer, R. A., & Van Brunt, D. (1995). Death anxiety. In H. Wass & R. A. Neimeyer (Eds.), *Dying: Facing the facts* (3rd ed., pp. 49-8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Ray, J. J., & Najman, J. (1974).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A preliminary Approach. *Omega, 5*, 311-315.
- Russac, R. J., Gatliff, C., Reece, M., & Spottswood, D. (2007). Death anxiety across the adult years: An examination of age and gender effects. *Death Studies, 31*, 549-561.
- Thorson, J. A., & Powell, F. C. (2000). Death anxiety in younger and older adults. In A. Tomer (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123-136).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Wass, H., & Myers, J. E. (1982). Psychosocial aspects of death among the elderly: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131-137.
- Wong, P. T. P., Reker, G. T., & Gesser, T.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1차 원고 접수: 2008. 4.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5. 13

최종게재결정: 2008. 5. 14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Fear and Death Acceptance

Hwee-sook Jang Young-im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fear and death acceptance with the college students and the sixties. Using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and death acceptance scale, It was clear that women were significantly more afraid of death than were men, but the sixties were necessarily not less afraid of death than were the twenties. Also women were significantly more accepting of life after death and of death as an escape from life than were men. The sixties were significantly accepting of death as an escape and of death as a natural end than were the twenties. Interestingly although accepting death, death was the object of fear in all subjects. By cluster analysis two cluster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ath fear, were discriminated according to death acceptance except the sixties women.

Key words : fear of death, death acceptance, approach acceptance, escape acceptance, neutral acceptance